

## 제2기 기후환경리더 양성과정 개강식 개회사

오늘, 제2기 기후환경리더 양성과정에 참여한 57개 대학교의 대학생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기후위기로부터 내 삶을 지키고 사회와 국가, 나아가 지구촌의 지속가능한 미래에 기여하겠다는 여러분의 열정에 찬사와 함께 무한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제1기 기후환경리더 양성과정에 이어서 이번 제2기 양성과정을 만드는데 노고를 아끼지 않아주신 '대자연'의 이혜경 회장님, 그리고 관계자 모든 분들께 따뜻한 위로와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후변화에 대한 우리 대학생들의 목소리를 듣고 행동을 보기 위해 참석해 주신 조병옥 음성군수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5월 9일 제1기 개강식을 하면서 이 양성과정이 자칫 하나의 행사로 그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없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기우였습니다. 1기생 150명의 진지한 자세와 열정적인 참여는 그 자체로 감동이었고, 나로서도 새롭게 배운 것이 한두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이번 2기 양성과정에 참여한 여러분의 용기와 결의에 찬 눈빛을 보니 1기에 못지않은 아니, 1기보다 뛰어난 활동을 기대해도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치열하게 토론하고 앞장서 행동함으로써 청춘어람의 모습을 보여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즐겁게 만난 첫 시간부터 무거운 이야기로 여러분에게 긴장감을 주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기후변화 현실의 절박함이 이보다 더 클 수 없기에 조금은 현실적인 이야기를 꺼내고자 합니다.

불과몇년전만 해도 사람들은 기후변화에 대응할 시간이 남아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기후과학자들은 벌써 1.5도 상승 억제를 위한 기후대응은 그 가능성이 매우 낮아졌고, 이제는 인간 존재를 위한 싸움이 시작됐다고 말합니다. 바로 '2050 탄소중립'을 이루어내는 일입니다.<sup>1)</sup>

2022.4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IPCC), 나사(National Aeronautics and Space Administration, NASA) 등에 소속된 기후과학자들이 기후연구를 파업하고, 기후대응 정책 수립을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를 진행했습니다. 과학은 충분히 기후위기를 증명했는데, 정책이 바뀌지 않고 있다는 항의였습니다.

기후과학자들의 노력으로 인류는 넷제로를 위한 해결책을 알고 있습니다. 국제 에너지 기구(International Energy Agency, IEA)에서는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50%로 줄일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으며, 화석연료에서 블루 수소, 그린 수소로의 에너지 전환까지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의지를 가지고 서두르면 벌써 1.5도 상승 억제가 아예 불가능한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나 정치적 의지가 갖추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해결책을 활용하기도 전에 기후변화는 위기로, 그리고 재앙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서 각 국가를 위한 지도자는 있어도 세계를 위한 지도자는 없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진정 필요로 하는 건, '2050 탄소중립'을 선도할 글로벌 리더입니다. 침묵은 그 자체로 인정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침묵한다면, 기후 합의를 지키는 대신, 경제성장과 비즈니스 이해관계를 우선시하며 미래세대를 위한 정책을 실현 불가능하게 하는 탄소경제 시스템을 여러분이 인정한다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꿈과 비전 그리고 젊은 열정이 있습니다. 저는 대학생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잠재력에 우리의 미래를 걸어보고자 합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직접 나서야 할 때입니다. 정치 지도자들과 정책 결정권자들에게 기후 대응의 목소리를 높이고, 도전적으로 요청하기 바랍니다. 그것은 권리이자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용기있고 대담하게 기후문제에 개입해 나가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기후환경리더 양성과정을 통해 해야할 일을 명확하게 설정하고, 논리적으로 말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미래세대가 인류의 생존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기후재앙이 없는 환경에서 모든 인류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넷제로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저도 이러한 문명적 대전환의 여정에 여러분과 뜻을 함께하고 여러분의 목소리에 힘을 실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